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3. 13 ~ 2022. 4. 2 제262호

포토에세이



▲ 잠비아의 어린이들. 제공: WMM

자유롭게 춤추리라

“나처럼 해봐. 이렇게! 이렇게도~”
 아이는 깔깔거리며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춤추기 시작한다. 친구도 질세라 손가락과 팔을 움직이며 몸을 흔들어보지만 이내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다. 서로 한바탕 크게 웃어 제끼다가 또 흥겨운 마음을 뭉치므로 드러낸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다. 배경음악도 없고 대단한 춤사위도 없지만,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사소한 것조차 기뻐할 수 있는 기쁨에 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정해둔 틀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미소를 띄우며 바라보시

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일한 관객 되시니 나는 오늘도 그 분 앞에서 자유롭게 춤추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스바냐 3:17) [GNPNEWS]

北, 공무원 월급 50센트... 공산주의 체제로 물질만능주의·부정부패 못 벗어나

자본주의의 병폐로 여겨져 온 물질만능주의, 부정부패가 실제로는 북한 공산사회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사회 병리 현상임을 소개한 영상이 공개됐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북한, 부정부패에 병들다’라는 제목의 9분짜리 영상을 통해 북한 체제가 뇌물없는 살아갈 수 없으며,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각종 자료화면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소개했다.

이 영상은 이현승 원코리아네트워크(OKN) 워싱턴 지국장의 “북한은 고위직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증언과 국제투명기구에서 파악한 북한의 부패인식지수에서도 180개국 중 174위로 꼴찌에 가깝다는 현실을 보여줬다. 이러한 북한에서 주민들은 돈으로 뇌물을 주지 않고는 일상적인 생활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은 또 보건의료계에서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데, 뇌물이 없으면 진료도 받을 수 없고 약도 구할 수 없다. 북한 출신 한의사 김지은 씨는 “의사들도 경제난으로 먹고 살기 위해 밖에 나가 돌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며, “주민들은 병원도 움을 받으려면 의사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부정부패는 북한 최고위층 관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 북한 주민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 더 높은 직책을 얻어내기 위해 매관매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집권초기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부정부패 혐의로 처형했고, 지난해 열린 노동당 8차 대회에서도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현승 OKN 지국장은 “사실은 김정은 본인도 부패 대상”이라며 “김정은은 월급을 공개하지 않고, 수많은 호화 별장과 외제차를 가지고 있으며, 김정은 가족이 한 해 공수해오는

고급 음식들만 해도 수천만 달러가 된다.”고 말했다.

이 지국장은 “반부패를 하려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처럼 공무원 월급을 높여주고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가족의 생활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북한 월급은 평균 50센트”라며 “현재와 같은 북한 체제로 부정부패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지금도 한국에는 친북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에 환상을 갖고, 한국의 자유시장경제를 폄훼하는 친사회주의, 친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을 깨고, 해방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사회가 이뤄낸 다양한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곳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자. [GN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46)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일단 이동을 통제하고 동물들은 살처분하여 묻거나 불로 태웁니다. 이때 병든 짐승을 살처분하는 것은 무서운 전염병에서 나머지를 보호하여 그곳을 살리려는 것이지만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방주 사건에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원

리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義人)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창세기 6:9)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죄와 무관한 사람이란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세기 6:8)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이자 존재적으로 의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계획하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격을 철저히 견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혹시 1호 방주, 2호 방주, 3호 방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노아의 방주는 오직 하나이고 방주의 문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일러스트=김경선

이 계시는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오직 한 길, 오직 한 구원, 오직 한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설악산 등산 코스처럼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오직 한 길로만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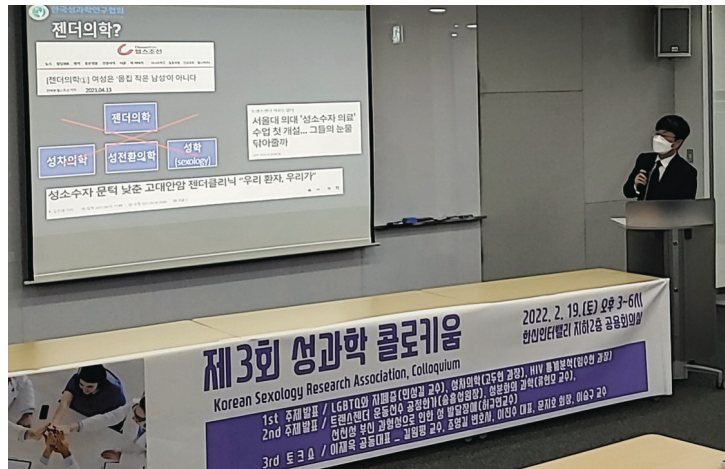
-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정년 전화는 삼가주세요

성전환자 등 인정하는 '젠더의학'으로 오진·약물 부작용 등 의료사고 우려



▲ 지난 2월 19일 열린 제3회 성과학콜로키움에서 발제하고 있는 고두현 팀장. 제공: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급진 페미니즘의 결과인 젠더의학의 등장으로 따라 생물학적으로 성을 규정하기 어려운 성전환자가 늘어날 경우, 오진이나 약물 부작용 같은 심각한 의료사고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성과연) 주관으로 지난 2월 19일 열린 성과학콜로키움에서 고두현 성과연 연구팀장은 의학적 연구 결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문화적 성별 차이를 강조하는 젠더의학이 사람들의 성별 정체성 혼란과 그에 따른 심각한 의료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고 팀장은 그동안 의학계 연구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의 의학적 차이는 X,Y 염색체에 기반한 성차(性差)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최근 성주류화 정책에 따라 연구 결과가 부족한데도 젠더학을 인위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젠더에 따른 성별 정체성 인정으로 성전환을 받아들일 경우, 성 정체성 혼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신질환은 한 사람의 일생을 비참한 결과로 이끌 수 있다. 실제로 양육과 교육을 통해 성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젠더를 현대적 의미로 처음 사용한 존 머니 박사의 실험에 따라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된 데이비드 라이머 형제는 성인이 된 이후 정신적 혼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처럼 젠더 실험 사례는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젠더가 타고난 성에 국한되지 않고 반복적이고 후천적인 행위로 결정된다는 머니 박사의 주장이 사라지지 않은 채 젠더의학으로 오히려 확대 재생산됐다.

젠더 주류화 정책, 세계적으로 확대

고 팀장에 따르면, 젠더 이데올로기는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인지 관점에 입각한 각국의 정책, 연

구, 법제정 요구로 이어졌다. 그 이후 세계 각국은 젠더 주류화 정책을 앞다투며 받아 들였고, 젠더의 학 역시 이 같은 젠더 주류화 정책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젠더의학은 배아에서 출생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생물학적 요인 외에 성 역할, 영양상태, 라이프 스타일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이처럼 현재 각국 정책을 혁명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다.

199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여성건강국을 신설하고, 2006년 젠더의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학술 분야에서 젠더 연구 방법 제시를 연구비 심사 의 필수항목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EU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젠더 평등과 젠더 규모를 연구하도록 하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연구와 정책에서 젠더 이슈를 강조하고, 유엔은 임상 연구 대상으로 여성과 소수자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여성가족부는 국가 차원의 각종 연구개발사업에서 '성 분석제도화'를 주장한 이후, 2016년에 사단법인 한국여성과학 산하에 젠더혁신연구센터가 설립됐다. 또 2021년에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일명 젠더혁신법)을 통해 각종 연구개발에서 성젠더 요소를 반영토록 했으며, 과학기술통계와 조사·분석에서도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2005년 룬다 슈빙어가 제안한 젠더혁신 제안은 젠더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혁신 기술을 개발하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남성 위주의 숫자나 기관, 지

식을 고쳐 탈남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젠더의학의 정착에 국내 언론과 대학, 의료계도 가세했다. 조선일보는 젠더학을 시리즈로 기획, 2021년에 '여성은 몸집 작은 남성이 아니다'라는 등의 보도로 젠더학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서울대는 성소수자 의료 수업을 개설했으며, 고대안암병원은 젠더클리닉을 개설해 해외로 나가서 수술하는 성전환자의 국내 유치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고두현 팀장은 이 같은 젠더의학의 대중화로 성전환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성호르몬 치료가 정당성을 확보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정상적인 성행위에서도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젠더의학은 오염된 페미니즘 남녀차의 성차의학 강조돼야"

고 팀장은 젠더학과 달리, 질병의 선별검사, 진단, 치료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감안한 연구를 하고 치료하는 성차의학은 인간의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불면증 처방약으로 사용되는 졸피뎀의 경우, 여성에게 인지능력장애와 운전 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FDA에서 여성에게는 처방 용량을 절반으로 감량하라고 권고되고 있다. 이는 성차의학의 연구결과에 따른 업적이다.

또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의 저하로 골다공증이 남자에 비해 6~10배나 높으며, 여성호르몬 치료시 당뇨 발병이 크게 줄어든 결과를 도출해낸 것을 비롯,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저하시 당뇨와 인슐린저항성이 증가하며 고지혈증이 증가하는 것 역시 남녀의 성차를 연구한 결과이다.

따라서 고두현 팀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심리적이고 추상적이며, 느낌에 따라 변하는 허상 같은 오염된 페미니즘인 젠더의학 대신, 분명한 남녀의 성차에 따른 성차의학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PNEWS]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BBC "메타버스, 아동 성범죄에 취약"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 공간이 아동 성범죄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BBC가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 가상 공간에서 아동을 향한 부적절한 성적 접근, 강간 위협, 인종차별 등이 흔하게 관찰됐다. 아동보호단체 영국 아동학대방지협회(NSPCC)는 "미성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가상 세계를 설계하는 기업들에 책임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님, 익명에 숨어 정욕과 욕심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공간에 미성년자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기업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게 하시고, 다음세대들이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中, 국가기관 가입 거부한 가정교회 목사에게 8년형 선고

중국 후베이성 법원이 개신교 교회를 규제하는 국가통제기관 가입을 거부한 가정교회 여성 목회자에게 복음전파 사기 혐의로 8년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최근 예정차오 교회의 하오 즈웨이 목사는 개신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기독교협의회 등의 승인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박해감시단체 '처치인체인'은 당국이 같은 혐의로 여러 가정교회 목사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성경을 제작하고 국가통제기관에 가입을 거부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등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국 당국의 교만을 무너뜨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중국 성도들을 통해 중국을 회복하여 주소서.

생명수호단체들, 사순절 맞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 진행

생명수호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40 days for life)' 한국본부가 올해 사순절을 맞아 3월 2일~4월 10일까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을 실시한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죄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상태로 태아들의 생명보호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낙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그 사람들조차도 지으며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듣게 해주셔서 생명을 죽이는 죄에서 돌이켜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3월 14일 ~ 2022년 4월 2일

3월 14일 ~ 3월 19일 3.14(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 010-4128-0448, 3.14~18(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3.15~18(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3.15,17~19(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3.16(0~24시) ▶제주 조천 / 함덕제일교회(박**)010-5002-2046, 3.18(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3.18(0시)~19(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010-3697-0641, 3.19(11~13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2교회 진행중.

3월 21일 ~ 3월 26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3.21~25(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3.22(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3.22,24~26(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3.24(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3.24(18시)~26(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3.25(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 외 3교회 진행중.

3월 28일 ~ 4월 2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3.28(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3.28~31(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야산병원(이**)010-5248-4147, 3.28~4.2(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3.29,31~4.2(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그 외 4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월드포커스 |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갑작스런 러시아의 침입으로 국민들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난 대열에 합류한 국민들은 공세가 적은 지역이나 국외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쪽으로 연결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한 선교센터는 이러한 피난민 대피소 역할로 갑작스럽게 집과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최근 영상편지를 통해 소개된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저희는 지난 주간에 전○○ 선교사님 가족이 머물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위치한 헤브론 공동체 이층짜리 큰 건물을 내어주셔서 잘 들어와 지내고 있습니다.

전 선교사님은 한국인 신분이어서 한국대사관의 요청으로 이곳을 떠나야만 했고, 그 빈자리에 저희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갈데 없는 저희가 이곳에 오겠다고 했을 때 전 선교사님이 흔쾌히 받아들였고, 저희가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의 몇 가족이 먼저 떠나왔습니다. 폭격이 시작되고 러시아 군인들이 침공을 시작하자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이곳에 방과 침대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 많은 식구들이 오겠다고 하여, 20여 분 정도

떨어진 무카치보에 있는 언덕에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수양관을 빌려 놓고 식구들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 친척들이 계속 연락을 하며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2월 28일) 새벽에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들어온 이후, 더이상 차량으로 올 분들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마다 주변에 점령군들이 있어서 나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이동을 포기하고 각자 은신처에 계신 상황입니다. 어제는 몇 가족으로 구성된 20여 명이 슬로바키아 국경쪽으로 갔습니다. 현재 연락이 안되는 것을 보면, 국경을 잘 넘어가신 듯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법적으로 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18살에서 60살 이내라면 국경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 국경 근처 약 4km 정도부터 국경까지 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는데 보통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량이 없는 분들은 내려서 아기를 안고 가방을 들고 걸어서 국경 쪽으로 계



속 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주변에 자원해서 군대 간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키이우(키예프)에서 그저께부터 피난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부 쪽으로 큰 도시마다 늘 다니던 차량 외에 최대한 순서대로 사람을 태워서 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는 도중에 충격이 있어서 기차가 서기도 하고, 몇 시간 연착이 됐습니다. 또 이곳으로 오는 기차 선로에 폭발물이 있다는 정보로 기차가 멈춰서서 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산을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식품을 제공하거나 공간으로 모시거나 직접 그분들을 보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급하게 나오시면서 돈이나 옷, 약품 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차량들과, 또 훈련 받는 우리 스태프 가운데 의사가 두 명 있습니다. 내일은 젊은 청년들과 헌혈센터에 가서 모두 헌혈할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섬길 계획입니다. 시간 시간마다 할 일들을 살펴보고 또 정보를 받고, 할 수

있는 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경에 몇 km씩 서 있는 분들이 30~40시간씩 운전하고 오셔서 국경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물, 음료수, 기저귀 등 필수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차로 오신 분들도 곧장 어떤 버스편으로, 혹은 국경에서 머물다 슬로바키아 국경 1곳, 그 다음에 헝가리로 나가는 국경 4곳으로 출국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간단하게 주스, 일회용 티슈, 물, 초코바, 과자 등을 구입해 국경 근처에 가서 그분들에게 좀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상황은 시장에 가면 배추나 감자, 당근 같은 것들은 살 수 있는데 깨끗한 마켓에는 기본 상품들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을 기억해주시고 구석 구석 하나님의 인도와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GPNEWS>

정광섭 선교사(우크라이나)



▲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까지 피난온 우크라이나 난민들. 출처: belsat.eu 캡처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 “국가 정체성 결정의 주도권을 국민에게 달라”

코로나 팬데믹의 방역정치로 절대 권력을 갖게 된 태국 정부가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틀어막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태국의 반정부 시위의 배경과 성격을 동남아시아정보센터 조흥국 소장(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이 정리한 글을 요약, 소개한다. 전문은 인터넷 신문 참조. <편집자>

2020년 2월 21일,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당인 미래진보당(Future Forward Party)을 해산하라는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민주화 운동가들로 하여금 태국 및 그 집권기관들과 정면충돌하게 했다. 코로나 사태로 민주화 운동이 복잡한 양상을 띠는 가운데, 2021년 10월 31일 태국의 재개방 개시와 더불어 시위가 다시 터져 나왔다.

이 시위는 2014년 초에 있었던 시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군부는 빠랏웃 짬오차(Prayut Chan-o-cha) 장군이 주도한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으며, 그는 그 이후 지금까지 총리로 있다.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 보니, 정쟁(政爭)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정당성, 그리고 정치적 해결책으로 사용되는 쿠데타와 시민 불복종의 역사적 악순환을 가져왔다. 2016년 푸미폰 국왕의 서거는 국가와 군주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의 아들인 현 와치라롱꼰 국왕은 실제적인 정치 안정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 보니 군부가 2017년 헌법에 따라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서게 되었다.

태국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각기 다른 정치 구조와 통치 모델들 간 정당성의 위기이다. 시위자들은 위계구조, 후견주의, 연고주의 등의 태국 정치 기반에 공공연히 이의를 제기하며 군주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20년과 그 이후의 시위는 군주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이전의 시위와 차별된다.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젊은 태국인들과 현 상태의 유지를 원하는 태국인들 사이, 정

치 체제에 대한 그들의 희망에 있어 세대간 차이를 보여준다.

정당성 위기의 필연적 귀결은 태국의 민족주의와 태국의 국가 정체성을 누가 정의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싸움이다. 즉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태국인 그들 자신이나? 만약 후자라면, 태국 시민들 중 어느 인구층이 그런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가? 태국에서는 이미 시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왕과 다른 기관들은 더이상 비난과 반대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변화의 성격을 규정지어야 할 사람은 태국인 그들 자신이다.

역사적으로 태국은 1932년 6월 24일, 시암(Siam) 혁명으로 빠라차피쁘크(Prajadhipok) 왕의 절대군주제는 막을 내리고 입헌군주제가 들어섰다. 그 이후 쿠데타를 거치며 민간인 출신 정치인들과 왕정주의 엘리트들 사이에 투쟁이 계속됐다. 2006년 이래, 태국의 정치 진영은 ‘빨간 셔츠와 노란 셔츠’, 즉 ‘왕정파’와 ‘반왕정’으로 나뉘는 등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다.



▲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태국 젊은이들. 출처: BBC 영상 캡처

현재 태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왕실의 정치 개입, 그리고 정치적 자기표현의 제한을 원한다. 인권변호사인 아논 남빠(Anon Nampa)는 입헌군주제로 태국의 군주제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들은 2017년 헌법 6조와 불경(不敬)을 불법화하는 태국 형법 11조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국왕이 더이상 쿠데타를 지지하지 말고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더이상 하지 말 것을 그들은 요구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는 시위에 반대할 추가 구실을 갖게 됐다. 그러나 국민들은 2021년 10월 30일 최소 1000명의 태국인이 방콕 거리로 나왔다. 만약 정부가 시위 열기가 가라앉을 것이라거나 또는 시위 주동자들을 계속 구금하면 국민의 불만이 잠잠해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태국의 민주화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궁극적으로, 시위자들의 원동력은 보다 공평한 사회에 대한 염원이다. 40세 이하 태국인들 사이에는 최근 빈번한 군사 쿠데타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그에 상관된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가 있다. 시위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탄압적일수록, 자체의 허점과 약점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 보다 공평한 미래를 기대하고 태국 정체성을 스스로 느끼면서 담대해지고 있다. <The Diplomat 2021년 11월 2일자 요약> <GPNEWS>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 | 창조 이야기 (68)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탄의 계획, “인구 줄이자”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하나님께서서는 아름다운 지구와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들로 채우라.’고 하셨다. 그가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축복이었다.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언급된 단어가 ‘축복’이다. “축복하셨다(blessed them, KJV)” 그리고 아담은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후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창 5:4)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그 첫 번째 가족에게 56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 예전

에는 대가족이었다. 그것은 ‘지구를 사람들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창 17:20) 또한 리브가의 가족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축복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창 24:60)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하게 지구를 지으셨다.’고 말한다.(사 45:18) 하나님은 지금과는 아주 달랐던 홍수 전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좋았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구를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정반대를 원한다. 사탄의 계획은 인구를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출산을 감소와 낙태, RU486(낙태약), 피임, 동성애, 임신 가능성을 줄이는 낮은 콜레스테롤, 비싼 생활비, 소가족, 우생학, 백신을 통한 높은 영아 사망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아동 포르노, 높은 십대 사망률, 자살, 마약, 술, 성병, 전쟁, 유전자 조작된 음식, 마약, 이슬람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평화적 종교라고 말하지만, 코

란에 ‘누구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필수’라고 100번이나 쓰여 있다. 이슬람 안에 평화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종교는 평화적이지 않다.

선악과 사건 이후 주님은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창 3:15)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다.(마 2:16) 사탄은 지구상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원하고, 그의 추종자들과 조력자들의 일부가 바로 지금 그 목적을 위해 일하는 중이다.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쿠스토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에 35만 명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CNN을 설립한 테드 터너는 “95%의 인구 감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지구의 인구를 10억 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생물 다양성 조약에 서명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철학자 피터 싱어는 출생 후 낙태를 주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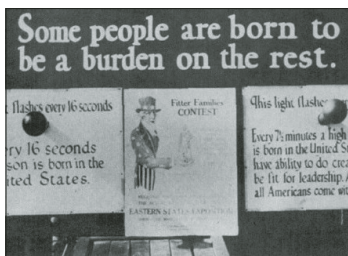


▲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지구와 동산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은 인구를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출처: Silvestri Matteo on Unsplash

다. 출생 후 28일 동안 키울지 말지를 결정하지는 것이다. 피터 싱어는 “기독교는 우리의 적이다. 동물권이 성공하려면 유대 기독교 종교의 전통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재생산에 대한 특정한 규칙들을 두셨다. “간음하지 말라”(출 20:14)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 진화론이 인기를 얻은 1963년 이후, 혼전 성관계가 급격히 늘어났다. 오늘날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의 3분의 1은 미혼 커플에 의해 태어난다. 간음으로 동거하는 커플이 725%나 증가했다. 이혼율도 폭

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강력 범죄가 1000%나 증가했다. 1973년에는 대법원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낙태를 정당화한다고 여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4500만의 아기들이 낙태되었고, 세계적으로는 10억이 낙태되었다. 낙태는 사탄의 인구 감소 계획에 효과적이었다. [GPNEWS]



▲ 우생학 관련 포스터 제목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있다.’라고 써여 있다. 출처: smtnks.com

복음의 능력

죄인이여, 지금 돌이켜라

지옥이 당신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당신은 장차 임할 진노가 두렵지 않은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벌벌 떨게 될 날이 도래할 것이다. 독사굴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장난치려는가? 당신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분의 진노를 가지고 장난하려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무 가책이나 감각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완고한 죄인이다. 대포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하면서 야단법석을 떨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미친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사람이다. 죄인이여, 회개와 거듭남의 좁은 길로 피하라! 당신의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을 당신의 주(主)와 의(義)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거룩함과 새로움 가운데 행하라! [G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선교 통신

“6번째 교회등록 신청이 또 다시 거절됐습니다”

새해 들어 알마티와 딸디코르간 조이교회 전 교인 오디오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 성경을 매일 두 장씩 듣고 읽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러시아어로 오디오를 만들어서 파일을 보내오는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섬김이나 섬김을 받는 자들 모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내내 알마티 조이교회의 교회등록을 위해 기도하고 6번이나 신청했지만, 12월에도 또다시 거절되었습니다. 마지막 거절 전에는 타협 요청이 왔지만 저희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할 예정인데, 정당한 절차로 교회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또한 이 길고 긴 선한 싸움에서 교인들 모두 지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섬기던 악사나가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카자흐스탄(카자)인 무슬림 청년과 결혼한 거라서 많이 당황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



▲ 카자흐스탄의 한적한 거리. © 복음기도신문

식은 하지 않고 형제 부모네 집에 인사 가는 것으로 혼인을 대신했습니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악사나 엄마는 한국에서 일하고, 아빠는 우즈베키스탄(우즈벡)에 있습니다. 현재 우즈벡에 있는 악사나는 한국 비자를 기다리고 있으며, 비자를 받으면 그때 청년도 함께 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적 절차가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결혼 후 곧바로 긴 시간을 떨어져 지내는 것도 마음이 쓰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한 마디나는 11월에 카작의 지방 도시로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임신 소식을 알려왔고 온라인 예배에도 들어옵니다. 마디나도 악사나와 동갑인 24살입니다. 나타샤는 어머니가 있는 스웨덴으로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2년 정도 있으면서 보바 형제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했는데, 두 사람이 파혼하면서 보바 형제가 먼저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나타샤는 지금도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카작에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유목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회사도 1년 이상 다니는 사람이 드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결혼 생활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못 붙이고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펜팔 한 번에 결혼한다고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어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그 힘으로 어디로 떠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유독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연속으로 상처를 받다 보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을지라도 이 사랑을 멈추지 않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주님을 닮게 되길 소망합니다. [GPNEWS]

타지키스탄=오묘한 선교사

☎ 믿음의 현장을 가다

“나노 코팅된 깨끗한 계란이 있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황한솔 대표(농업법인 한솔양계)



© 복음기도신문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원천침례교회 집사이자 한솔양계 대표,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벤처법인 한랩의 대표, 서울시립대 스포츠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겸임교수로 있는 황한솔입니다.”
 - 직함이 많으시네요. 양계와 스포츠, 벤처회사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대표님을 인도하신 과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경기도 동탄에서 양계장을 하셨어요. 양계장 운영으로 저와 누나에게 예술 공부를 시키셨어요. 예고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저는 적성이 맞지 않아 포기하고 어릴 때 수영 선수를 했던 경험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 서울대 체육교육과에 진학하게 됐어요. 단번에 간 건 아니었고 4수를 해서 어렵게 입학했어요. 이러한 시련들로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스포츠마케팅 전문가에서 기업인 양계사업 맡아

- 시련들이라고 하셨는데, 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을 깊게 알지는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사고도 많이 치고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어요. 부모님은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빨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서, 부상도 당하고 거절을 많이 당했지만, 계속 도전했어요. 또 나이가 많아 간신히 등록한 학생군사교육단(ROTC)으로 해병대 장교로 가게 됐어요.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죠. 지금 돌이켜 보면, 그 기간 동안 저를 하나님이 단련해주셨다고 생각해요.”
 -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인도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대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스포츠 마케팅 분야를 알게 되었고, 관련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제 적성에도 맞았지만, 업무상 매일 술을 먹어야 하는 게 힘이 들어 3년차에 일을 그만두고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영어도 못하고 미국의 대중스포츠인 풋볼 경험도 없고, 쉽지 않았어요. 조교로 수업 준비를 하고 새벽 3시에 집에 돌아와 라면 끓여먹으면서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지

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연단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 네, 계속 연단이 있었네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유학기간 중 저와 전공이 같은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집안 사정이 가장 안 좋은 때였어요. 동탄의 재개발로 지금의 당진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가정에 위기가 닥쳤어요. 그때가 2014년도였는데, 어머니의 권면으로 도중하차하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었어요.”
 - 그때까지도 지금의 양계사업을 할 계획은 없었군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에서 스포츠와 기술이 결합된 ICT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을 배워, 지금의 양계사업에서 적용하고 있으니 재미있죠. 하나님의 은혜죠. 2016년에 전공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차리고 친구들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제가 양계농장을 맡게 됐어요. 저밖에 할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그 무렵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 어릴 때부터 양계하시는 부모님을 봤지만, 사업하는 양계와는 달랐겠죠.
 “전혀 연고도 없는 충남 당진이라는 동네에 와서 배달하면서 참 서러웠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대인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힘들어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항상 시작하는 기도였어요.”
 - 막막하셨겠네요.
 “닭장에 가면, 6만 마리의 닭들이 나만 쳐다보는데 막막하더군요. 제가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찔했어요. 양계장에서 일하는 태국 분들이 있었는데 가서 ‘형, 살려줘. 나 모르니까 가르쳐주면서 나 좀

살려줘.’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아니 전부를 가르쳐줬어요. 사실 제게는 은인이예요. 양계장은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ICT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온도, 물, 사료가 자동으로 조절되는데, 기계가 고장나면 한꺼번에 몰살할 수 있어서 위험해요. 그래서 매일 점검이 필요해요. 이런 걸 다 배우고, 고치고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지냈어요. 8층까지 있는



▲ 계란을 세척하고 나노 코팅한 이후 포장하는 과정. © 복음기도신문

닭장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닭을 보면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온도를 30도로 유지하기 위해 여름에 열을 사다가 물탱크에 집어넣고, 땀범벅 얼음범벅이 되기도 했는데, 이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닭장에서 6만 마리 닭들이 저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 많은 직함 안에 이런 어려움이 숨어 있었는지 몰랐네요.
 “저희 부모님은 유통을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중간상인들만 거래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계란은 전국 어디나 생산지 가격이 동일해요. 좋은 계란도 있고 나쁜 계란도 있는데 고려가 안돼요. 좋은 계란을 만

들 의욕 자체가 안 생겨요. 계란 가격이 늘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좋은 계란을 만들고, 좋은 만큼의 가격을 위해 유통센터를 만들었어요.”
 - 좋은 계란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좋은 계란인가요?
 “한마디로 하면 건강한 계란이에요. 저희는 계란의 세균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기술을 가진 곳이 저희밖에

문제는 계란에 물이 닿으면 신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름에는 계란에 묻은 먼지만 털고 출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은 그 계란을 소독하고 코팅을 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건데 획기적이죠.”
 - 꼭 필요하고 중요한 기술이네요. 매일 먹는 계란에 이런 기술이 적용되는 줄 몰랐어요.
 “전통적으로 양계를 하는 분들은 계란 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저도 양계만 했으면 기술 개발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공부시킨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기술만 있다고 쉽게 될 수는 없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난해 벤처캐피탈에서 마침내 투자를 받았어요. 기술의 우수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거죠.”
 - 농업전문회사로 투자를 받기는 쉽지 않았을텐데요?
 “이 센터를 지을 때 미친놈, 사기꾼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지난해 초반에 건물이 완공됐는데, 기계 하나에 10억이나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작년에 조류독감으로 계란이 귀했는데,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기적이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해결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으면 앞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변은 시끄러운데 마음은 평안하고 고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것 같아요.”
 - 고난의 연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있었군요.
 “그 외에도 어려운 일이 계속 있었어요. 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조류독감 때문에 계란이 없는 시기도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었던 적도 있었어요. 삶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렇게 키워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는데,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몸이 아프신데도 밤 12시까지 계란 포장하시고 아픈 아버지를 돌보세요. 그 덕분에 제가 나가서 돈도 구해오고 계란도 팔러 다니고 그래요. 이런 과정을 보면 주님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
 (6면에 계속)



▲ '한솔양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 © 복음기도신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빛나는 믿음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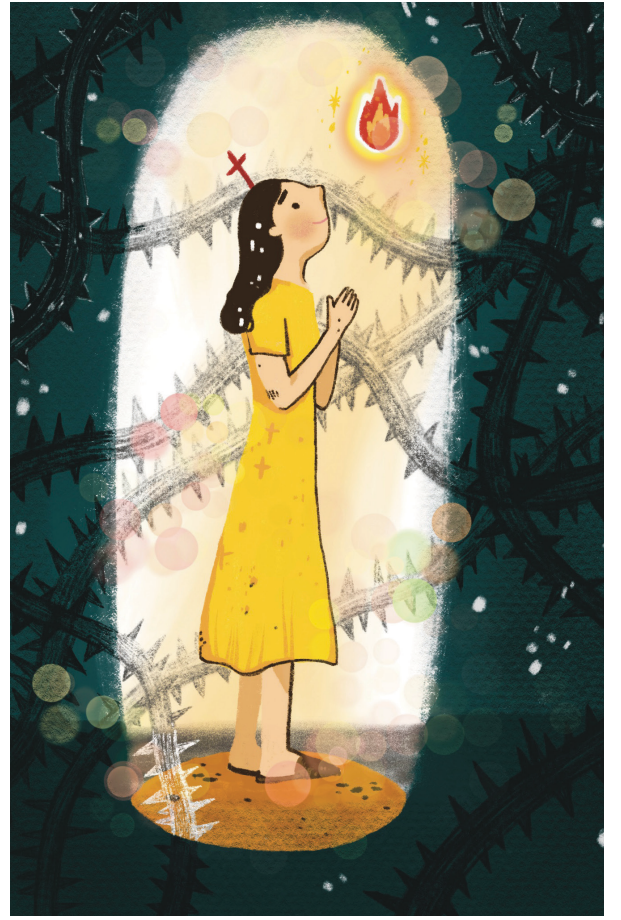
인내로 예수를 따라가라!

“인내로 경주하라” 인내란 참고 견디라는 말이다. 경주를 시작했다가 조금만 다리가 뻥기고 힘들고 숨이 차고 그러면 ‘나 못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경주자가 아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창조의 원리이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이다. 인내는 잠깐 아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가장 깊이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다. 지금은 고난의 때이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의 때를 지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마지막 때요, 악한 세대이다. 나 자신만 아니라 국가든 사회든 인생이든 모두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때야말로 견디

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자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의미한다. 성경에 무릇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정당한 이치이다. 바람을 등지고 가면 떠밀려 가면 되지만, 바람을 맞아서 가면 바람에 계속해서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바람을 뚫고 가야 되는 것이다. 바람이 부는 대로, 유행이 이끄는 대로, 여론이 형성되는 대로 나를 거기에다 맡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내 없이는 이 고난의 때를 살 수가 없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어차피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그 인내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본받으라’하신다. 인내에 관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바라보시는 영광이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바라보고 오셨다. 이 일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잔이 있고 치러야 할 값이 있었다. 그분이 견뎌내셔야 할 일은 십자가였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해야 하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것에 매이지 않으셨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가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한 걸음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즉, 마구간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주님께 일어난 모든 일은 다 그분에게 필요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일이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값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는 우리가 못 견디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기억하라.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일러스트=이예원

그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길은 오직 믿음과 인내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다. (2021년 1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이다. (2021년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삼성연합의원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태복음 9장 35절)

병원을 주님께 드리며 재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 “함께 해요”

대상자

- 목회직: 목사, 전도사로 임원환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삼성초대교회와 선교동역하실 분
- 전문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간병사 그 외 의료 전 분야에 걸쳐 환자 선교의 사명을 가진 분

삼성연합의원 · 삼성초대교회 | 문의 ☎ 010-8528-3217

선한사업 / 선한기업

엘타임

선한사업 디모데전서 6:17~19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려워 /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기업 잠언 16:8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 전문소방시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문의 : 033)761-0078

안전 제일

Interview <5면에 이어>

아무도 몰라줘도 곳곳이 가는 길

해주셨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자꾸 계란도 베풀게 하세요. 어려운 이웃도, 선교 단체에도 계란을 기증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팔 계란도 없는 상태에도 나눌 수 있었어요. 아깝다는 생각은 한 적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아니까요.”

-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손길의 통로가 되셨네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양계를 하니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류독감이 유행할 때는 사람들이 저를 바이러스 취급하기도 해요. 그때 속상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식자재를 못 드신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기술은 계란뿐 아니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요. 외국에서는 나노 코팅 기술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홀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식자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안돼요.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 수출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의미 있는 기술을 잘 안 알아주고 가치를 낮게 평가해요. 그래도 저는 기도하면서 곳곳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GPNEWS]

C.K.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솔양계’ 미란, 제육, 한솔양계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못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싫은 것... 십자가에서 깨달은 위대한 발견

주님의 부르심으로 4개월여 합숙 신앙훈련인 복음사관학교에 들어갔다. 입소 전부터 가정의 부재상태에서 훈련 기간 동안 남은 가족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 계속 나를 괴롭혔다. 기도해도 염려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는 말씀을 주셨다. “너의 아내를 너의 아내이기 전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아버로서 사랑하는 나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딸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겠느냐. 그리고 언젠가는 네가 먹고 보살핌을 받는다. 꼭 그런 사람처럼 염려하는 척 생색내지 말고 온전히 나의 눈빛만 바라보아라.”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이 명령은 내게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시작이었고 은 이후 훈련의 시간 동안 주



일러스트=고은선

님은 나의 실상을 보여주셨다.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편견이었다. 원하지 않는 음식도 믿음으로 취하라는 권면을 받았다.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서 괴로웠다. 어려운 시간이 이어지면서 권면한 사람을 복도에서 만나는 것도 두려웠다. 주님

께 여러 번 물었다. “왜 이런 쓸데없는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전혀 먹지 못하는 음식은 아니잖아. 먹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지.’ 그렇다. 안 먹고 싶은 것이지 못 먹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거부하니 소화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알았다. 마음의 문제였다. 남들

에게는 사소해보여도 나에게겐 엄청난 발견이었고 무한한 은혜였다. 또 한 가지, 무관심이 사랑인 줄 착각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다. 형제에 대한 무관심이였다. 상속문제로 지금까지 외면하고 살다시피 했다. 처음에는 미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용서가 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무관심의 대상이다. 훈련을 마치고 직접 찾아가서 미워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로 결단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십자가에서 얻은 위대한 발견이었다. 이제 앞으로의 어린 양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디아스포라와 소외계층을 섬길 마음을 주신다. 복음 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결단한다. [GPNEWS]

차상복

부흥을 위하여

유니세프, “북한, 영양실조 아동 사망 증가”

한반도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웃이 살고 있는 북한의 회복을 소망하며, 북한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인도적 대북지원 제재면제에도 결과적으로 영양실조로 사망한 아동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최근 제재 대상 국가에서 ‘제재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Sanctions and their impact on childre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식량 및 의료품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가 면제되고 있지만 면제 승인이 지연되거나 물품에 대한 방역기간이 장기화되고, 해외 공급 업체가 감소해 인도적 지원 관련 품목 및 운영 비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 금융기관들이 은행 거래망을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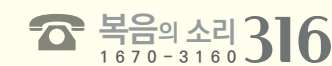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아동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 체제를 개선하려는 그간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10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안보가 불안정하고 14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가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치료용 영양제(therapeutic nutrition) 공급량이 줄어 앞으로 영양실조 건수와 사망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아이들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출처: 유니세프 ‘제재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캡처

한편, 보고서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유엔 제재 면제를 받는 방법과 절차,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2018년 제재 면제와 관련된 정보를 갱신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통제를 위한 북한 당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인도적 구조를 위한 물품 수입이 늦어져 2020년 8월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이 정치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연초부터 식량 부족에 시달리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당원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뾰족한 해결책 없이 가을까지 견디자고 해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함경북도당은 이번 광명성절(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맞으며 진행된 여러 정치행사에 가정적으로 식량이 부족해 밖을 나설 수 없어 참가하지 못한 도내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자 집행위원회를 열고 대책적인 문제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교회 재정을 횡령했는데 드러날까봐 두렵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한 부서의 회계를 맡았는데, 꽤 오랫동안 부서의 재정을 훔쳤어요. 부서에서 이 사실을 눈치 채서 조사 중에 있고 곧 제 소행이 드러날 거예요. 이전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두렵어요. 어떻게 하죠?

공금, 그것도 교회공동체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알게 될 상황 앞에 두려워 떨고 계시는군요. 정확히 얼마를 사적으로 써 버렸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장기간에 걸친 부정함이 향후 자신의 거취문제까지 합하여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당신 존재 자체를 회개해야 합니다. 존재적 죄인됨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면 여전히 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훔치는 문제만 해결되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임을 깨달아 존재적 죄인됨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훔친 재정을 매꾸십시오.

그러나 내담자는 “도저히 창피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냥 용서 비는 것 없이 마무리 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그 모든 고민을 날려버리고도 남을 권능의 복음입니다. 이 문제로 창피해서 죽고 싶고, 해결법이 없어 죽고 싶은 내담자님, 당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 존재적 죄인인 당신도 이미 죽음으로 처리된 것을 아시나요? 이것은 사실입니다(롬 6:3-4). 느낌이 없어도 성경이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사실이니 이 복음을 믿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GPNEWS]

北 주민, 연초인데 식량 없어... 도당 “허리띠 조이고 버티자”

북한 주민들이 정치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연초부터 식량 부족에 시달리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당원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뾰족한 해결책 없이 가을까지 견디자고 해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함경북도당은 이번 광명성절(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맞으며 진행된 여러 정치행사에 가정적으로 식량이 부족해 밖을 나설 수 없어 참가하지 못한 도내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자 집행위원회를 열고 대책적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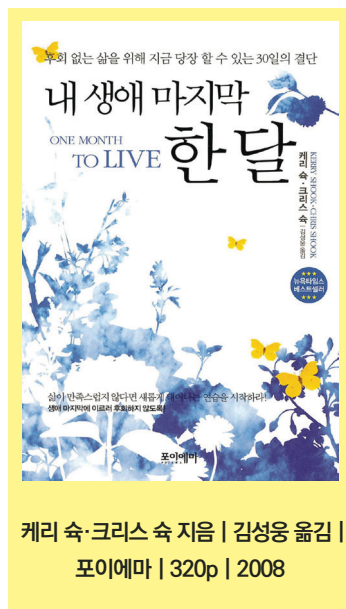
들을 토론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도는 연초이지만 벌써 식량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생겨나고 있고, 생활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 굶는 세대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함경북도당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18일 도당 집행위원회를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소식통은 이날 회의에서 “도당은 어려운 때일수록 도내 일꾼(일꾼)들이 인민들의 생활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모든 당 기관, 인민위원회, 경영위원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려운 주민들의 생

활을 돌봐주며, 농번기에 들어가기 전 힘겨운 가정 세대들을 찾아내 도의 부담으로 도와줘 굶어 죽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도당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올해 가을까지 버티나가자고 호소했는데 이런 호소에 일꾼들은 ‘해마다 허리띠를 조이고 사는데 어디까지 허리띠를 더 조여야 이 곤란에서 헤어나오겠느냐.’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식량을 해결하겠다는 희망적인 회의는 없고 늘 견디자는 회의뿐’이라면서 허탈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G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케리 슈, 크리스 슈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마지막까지 동일한 삶을 살았던 어머니... 그 비결은?



케리 슈·크리스 슈 지음 | 김성웅 옮김 | 포이에마 | 320p | 2008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결단과 두 번째 얻게 된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삶에 대한 열정을 잃은 채 일상에서 쳇바퀴를 돌며 무언가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듯한 현실 속에 있던

않은가? 만약 내 생애가 한 달이 남았다면? 이 책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이 한 달 남은 자처럼,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시작하는 “30일의 결단”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각 개인에게 꿈꾸셨던 독특하고 고귀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일깨워 준다.

저자는 마지막 한 달을 남긴 자처럼 사는 것에 꼭 필요한 원리를 소개한다. 그 첫 번째는 열정이다. 저자는 “당신이 이 책에서 꼭 얻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당신의 삶에 열정을 점화하고 회복되는 것이다. 당신이 딱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이 소중한 선물을 매 순간 즐기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뭔가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이 땅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매 순간 바치고 싶을 것”이라고 말한다. 열정(enthusiasm)은 두 개의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en’과 ‘theos’이다. ‘en’은 ‘안(內)’을, ‘theos’는 ‘신(神)’을 뜻한다. 해석

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이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인 가지로 살아가는 자만이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마지막 한 달을 사는 자는 자신이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었는지 질문하게 된다. 혹은 아무것도 열정을 쏟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책은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언급한다. 이를 통해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자리를 잊을 때이다. 실제 나도 매일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사랑의 연합이 없었을 때, 열정의 원천을 잃어서 작은 일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무기력했다. 또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이다. 저자는 깨닫고 알게 된 대로 순종하는 성실함을 잃으면 열정에 물을 탄 것처럼 흐려진다고 설명한다. 주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으며 그 생명을 더욱 누릴 수 있다. 끝으로 분노, 섭섭함,

상처 등의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열정에 구멍을 낸다고 저자는 언급한다.

나는 책을 읽으며 마지막 한 달을 남긴 자처럼 질문들에 답하고 결단을 기록해보며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정작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고 들어보려고 했다. 나의 감정을 털어놓고 건강하게 갈등을 해결하며 소통하는 것을 실천해왔다. 난 여전히 무기력해지기 쉽고 결과에 연연하며 비겁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았다.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유치하고 연약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다. 열정적인 삶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말씀 한 절, 입을 벌려 하는 기도 한 소절을 통해 주님의 생애에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이 책은 저자의 어머니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다. “어머니는 암에 걸린 것을 아셨다. 한 달밖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도 그분에게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암이라는 말을 들은 날부터 그분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사셨다. 왜? 지금까지 같은 뜻과 태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는 동생으로부터 2021년 한 해 동안 지인 4명이 자살했다는 말을 들었다.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로 젊은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저자의 어머니처럼 삶의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도 달라질 바가 없게 하는 주님의 열정과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세상을 살릴 것을 믿는다.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을 사는 자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힘 있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마라나타! [GPNEWS]

김은영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쿠바에서 믿음 갖는 것은 어렵다. 아버지는 아이티 출신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술·성인숭배 등을 보며 자랐다. 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었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

청소년 때에 중병에 걸렸다. 종양이 있어서 신장 하나를 떼어냈고,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했다. 부모님은 주술로 나를 고치려 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무신론자였던 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고 성경을 주었다.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기에 성경을 받은 다음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신약을 펼쳐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한 마태복음 1장의 구절을 읽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날 밤, 악몽을 꿴다. 내 몸이 아주 뜨거운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너무 답답하여 깨어났고, 부모님께 “나를 어디론가 데

려가려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며 도움을 청했다. 부모님은 “신발을 십자가 모양으로 놓으라.”고 말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대신 베개 아래 성경을 놓고 잤다. 다음 날 바로 교회에 나갔고, 교회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 동안 몸이 치유되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날 치유하셨다. 구하셨습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 메시지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는 수천 개의 답 없는 질문이 있었다. 목사님에도 내 인생은 너무 큰 비참함 속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내 안의 죄에 대한 고민이었다. 직업과 같은 목회로 나는 많은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복음을 듣게 해주셨다.

2014년, 한국에서 쿠바로 와서 세미나를 인도한 조성욱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다. 처음에는 새로운 전도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집

회 현장에서 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 망치로 두드려 맞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 같았고, 창으로 찌른 그 사람 같았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때 큰 죄책감이 느껴졌다.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말씀을 들으며 ‘이것을 전 세계에 전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쿠바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쿠바 사람인 나는 밖으로 나가 전하지 못할까?’라는 생각



▲ 아놀드 목사. 제공: 조성욱 목사

도 들었다.

이후 교회에서 설교할 때,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 복음을 이들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도들에게 “이전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복음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교회와 신학교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그때, 우리가 있던 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GPNEWS]

아놀드 목사(쿠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2. 2. 8 ~ 3. 2 (가나다 순)

개인

강종채 권혜령 김경선 김광희 김다경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애심 김정희 김형숙 김혜선 노은옥 류영열 박경희 박성규 송근우 신경순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윤미자 이삼현 이영미 이영선 이영욱 이장원 이주선 이진희 정금자 정효신 조명숙 조현광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점옥 최정숙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김화제일교회 꿈꾸는교회 남원열방참사랑교회 목자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새순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서현교회교정팀 순회선교단 웹 시흥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양광교회 열매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오예그교회 오이코노모스미 은강감리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주소망교회 처음사랑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